

WTO 개도국 지위 철회...전남 쌀·양파·마늘 직격탄

관세 대폭 감축 생산감소 이어져...축산분야는 FTA 체결 영향 적어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농업 저비용 고효율 구조 전환해야"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 개도국 지위를 철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전남의 특화 품목 중 쌀, 양파, 마늘, 고추, 파, 배추, 보리, 고구마 등의 관세가 대폭 감축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결국 큰 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쇠고기, 돼지고기, 닭, 낙농(젖소) 등 축산분야는 비교적 관세율이 낮고 주요 수입국인 미국, EU, 호주 등과 FTA가 이미 체결돼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창완 선임연구위원과 서정원 연구위원은 전남의 미래 농업 방향을 '저비용 고효율' 정책해 집중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 등은 '광전리더스 인포' 제158호 '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에 따른 전남농업 대응 전략'에서 "미래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 감축이 5년 동안 50~70%로, 개도국 10년간 33~47%에 비해 평균 약 20%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이행기간과 관세감축폭이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쌀,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 감축 변화를 보면 선진국 의무 이행 시 주요 민간품목의 관세율 인하가 불가피해 전남의 주요 특화품목 및 전국 점유율 상위 품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보조금의 경우 감축대상보조금은 현행 1조4900억원 수준이나 선진국 의무 이행 적용 시 8195억원으로 5년 동안 45%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남 농업을 지속가능한 저비용 고효율의 농업구조로 전환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생산비 및 유통비 절감 등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ICT(정보기술)·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전남 농업의 첨단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직화와 시스템화를 강조했다. 또 전남 농어촌진흥기금 추가 확충을 통한 농업정책자금 이자 등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역자원의 농가소득 안정장 강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 할랄시장 등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친환경전남농

식품수출회사(가칭)'를 설립,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WTO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는 농도 전남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있지만, 전남 농업을 밀도 높게 진단하여 환경에 부합한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산학관연인 등 지역 모두의 관심과 지원,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의 순천 공각, 담양 청춘마을 등 4곳 농업환경보전 지원사업 선정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치과중환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치과병원 종사자들이 기자재를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심포지엄 개최

광주시는 광주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지난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유지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정현 광주치과의사회장, 전남남도치과의사회 홍국선 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정보교류 등 네트워크를 다지고 치의학산업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인구 고령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치과산업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상 치의학 연구 등 치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국

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연자로 나선 반재삼 광주테크노파크 생체의료 소재부품센터장은 '광주 의료산업 현황과 비전'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국내외 치과시장 동향과 광주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치의학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공약인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박정현 위원장 등 15명을 치의학연구원 설립유치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년 전남도정 일자리·관광 방침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구체화

김영록 전남지사 시정연설

2020년 전남도정은 일자리와 관광을 양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새전년 전남의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도정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했다.

김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 그동안 '블루 이코노미'라는 새전년 비전을 세우고, 해묵은 지역 인프라 해결하며 국고예산 7조원 시대에 돌입하는 등 도정 발전에 이끔 기반을 확실히 닦아왔다"고 지난 도정을 소회했다.

일자리·경제와 관광을 31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2대 분야를 중점 강조했다.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도록 할 전략이다. 에너지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 운송기기 산업 중심의 '블루 프로젝트'와 기존의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동반 상승을 이끌

어널 방침이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기초과학 연구시설인 1조 원 규모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신안 해상 일원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12만 개의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화순·장성·장흥 등을 중심으로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고흥 일원을 중대형 산업 드론의 종합클러스터로, 영광 일원을 자율주행 실증 기능을 갖춘 e-모빌리티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여수국가산단의 스마트산단 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해경 서부정비항 유치를 기반으로 선박 수리 등 조선산업의 부흥을 꾀할 예정이다.

해양관광과 내륙관광을 아우르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블루 투어)를 구축해 관광객 6000만 시대를 앞당기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경전선 전철화, 남해안 철도 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연결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목포·여수신항 크루즈 부두·터미널, 연안 크루즈 부두시설 등 크루즈 관광기반도 다지기로 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범국민적으로 공론화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수도권기업 대상 투자환경설명회

2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광주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한다.

투자설명회는 광주시 투자환경 및 광주투자기업 사례 소개, 투자기업 지원제도 홍보, 광주시 핵심산업별(인공지능, 에너지, 공기관업, 자동차) 육성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산업별 투자의향 기업과 투자협약도 체결한다. 투자협약 대상은 국내 2곳, 국외 8곳 등 10개사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및 친환경자동차 사업에 관심있는 중국 유망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2박3

일 간 팸투어도 실시하며 광주투자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팸투어 첫째 날에는 광주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방문해 투자사례를 직접 듣고 광주시가 분양 중인 산업단지도 방문해 투자환경을 직접 살핀다. 둘째 날은 광주과학기술원과 그라핀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을 방문해 산업별 지원정책과 인프라를 확인한다. 마지막 날에는 광주투자환경설명회와 이용섭 시장이 주재하는 외국기업 투자라운드테이블 등이 열린다.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투자홍상과(613-4063-4)로 문의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gwangju.kr>

의회 Kwangju Metropolitan Council